

코로나19 대응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 개최

- 해외동향 면밀히 모니터링, 국내 발생은 안정적으로 관리 중 -

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와 질병관리청(청장 지영미), 국립중앙의료원(원장 서길준)은 5월 23일(금) 14시,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했다.

이번 회의는 최근 일부 국가(홍콩, 중국, 대만 등)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, 해외유입 차단 및 국내 방역 관리 방안, 응급실 코로나 환자 동향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.

정부는 ▲해외 코로나19 발생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, ▲고위험 국가발 입국자에 대한 안내 강화 등 해외유입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, ▲국내 유입 시 조기 발견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있다.

현재 국내 코로나19 발생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, 위중증 환자 비율 및 병상가동률 등 주요 지표들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. 다만 정부는 해외 유행 확산이 국내 유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방역망을 유지할 방침이다.

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“정부는 앞으로도 감염병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 및 국내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,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”이라며, “국민 여러분께서는 손씻기, 기침예절 등 개인방역수칙을 일상 속에서 계속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	책임자	과 장	장재원 (044-202-2430)
		담당자	사무관	김종구 (044-202-2517)
	질병관리청 호흡기감염병 대응 TF	책임자	팀 장	김동근 (043-719-7150)
		담당자	연구관	송정숙 (043-719-7141)
	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	책임자	실 장	고은실 (02-6362-3438)
		담당자	팀 장	한소현 (02-6362-3473)